

전자에서는 50%에서 관찰되었고 후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24시간 소변단백은 전자는 평균 3.3 gm, 후자는 2.0 gm이었다. Selectivity Index는 전자의 경우 평균 0.445, 후자의 경우 1명에서 측정되었는데 0.218이었다. 혈청 Cr이 1.2 mg% 이상과 Ccr이 60 ml/min/1.73 m<sup>2</sup> 이하가 전자에서는 각각 54%, 62%였고 후자는 ATN이 있었던 환아를 제외하고는 정상이었다. C<sub>3</sub>감소는 전자에서는 69%, 후자에서는 33%에서 관찰되었다. 마지막 추적 관찰당시 전자에서는 사망이 15%, 만성 신부전이 31%였고 후자에서는 ATN이 있었던 환아가 만성 신부전에 빠진 예를 제외하고는 신기능은 정상이었다.

HBsAg만 양성이었던 환아는 EM에서 내피하 침착만 발견되었으나 HBEAg도 양성이었던 환아와 CAH가 있었던 환아에서는 상피하 침착도 발견되었다.

— 5 —

### 간염 B 표면항원이 양성인 사구체신염 환자에서의 임상-병리학적 소견의 상관관계

서울의대 내과  
안규리·김성권·이정삼

병 리 과  
김 용 일

1971년 Coombs 등은 B형 간염바이러스가 사구체신염을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후 10여년동안 B형 바이러스에 의한 사구체신염의 병리적 소견 및 임상상에 대한 산발적인 보고가 있어 왔으며, 발생기전에 대하여는 면역복합체에 의한 2차성 병변임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B형 바이러스에 의한 사구체신염의 빈도는 물론, 임상소견과 병리조직소견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

B형 바이러스 항원중 어떤 항원이 사구체신염을 일으키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B표면항원의 면역복합체가 여러 신질환에서 증명되었고, 사구체 내에서도 직접면역형광법으로 확인되어, 이 항원이 사구체신염의 발생기전에 관여될 것으로 간주되고,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B표면항원의 양성율이 10%에 달하는 지역에서는 B표면항원은 상당수의 사구체 질환의 원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자들은 B표면항원에 의한 사구체신염의 양상과 임상-병리조직학적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79

년 1월부터 1984년 3월 사이에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신생검을 시행하였던 환자중 B표면항원이 양성이었던 8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임상상, 면역형광학적 검사를 포함한 검사소견과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비교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B표면항원은 RIA로 측정하였고, 신조직의 LM, IF, EM검사를 시행한 결과 다양한 병리조직소견을 얻어서 일관된 분류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연자들의 분류를 사용하였다.

이 분류에 의하면(class I) 미소변화형 9예(II<sub>a</sub>), 비중식성 mesangial expansion 14예(II<sub>b</sub>), 미만성 mesangium 증식형 10예(III<sub>a</sub>), 초점성 6예(III<sub>b</sub>), 초점 증식성 6예(IV<sub>a</sub>), 비중식성 막비후 및 subendothelial 침착형 13예(IV<sub>b</sub>), 막중식성 9예 및 (V) 막성 17예 기타 5예이었다.

이 분류에 따른 임상상, 각종 면역 parameter, 신, 간기능 검사와 노검사 성적을 관찰하였다.

— 6 —

### 肝炎 B 表面抗原 陽性인 患者의 腎臟 및 肝臟 組織所見과 臨床狀에 關한 研究

서울醫大 內科

李勳鎔·金聖權·李正相

病 理 科

金 勇 一

B형간염바이러스와 腎疾患과의 관계는 1971년 Coombs 등이 최초로 보고한 이래 많은 보고가 되어 왔다. 특히 韓國에서는 HBsAg 양성율이 10%에 이르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도 HBV 감염이 腎疾患의 樣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思料된다.

이에 演者들은 1976년 1월에서 1984년 3월 사이에 本院에서 HBsAg 양성이면서 腎 및 肝生檢이 모두 시행되었던 34例를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成績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34명중 남자가 28명, 여자가 6명이었으며, 光學顯微鏡所見狀 membranous nephropathy(MN)가 12명(35%),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MPGN)가 11명(32%), chronic sclerosing glomerulonephritis(CSGN)가 4명(12%), mesangial 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MeGN)가 3명(9%), minor change(MC)가 3명(9%), focal glomerulosclerosis

(FGS)가 1명(3%)이었다.

2) MN는 chronic persistent hepatitis(CPH)가 5명(46%), chronic active hepatitis(CAH)가 4명(36%), acute viral hepatitis(AVH)가 1명, 정상인 1명(9%)이었으며, 초기의 임상양상은 腎症候群(6명), 蛋白尿(1명), 血尿(1명)으로 나타나며, 임상적으로 肝疾患의 證據가 있는 예는 2/12명으로 낮았다.

3) MPGN은 liver cirrhosis(LC)가 6명(50%), CAH가 6명(50%)이었으며, 초기임상양상은 血尿(5명), 蛋白尿(1명), 腎症候群(1명)이었으며, 이들은 전부가 임상적인 肝疾患의 症狀이 있었다(이중 4명은 肝疾患의 症狀이 主訴였고 腎疾患의 症狀은 없었다). 즉, 黃疸의 過去履(4명), 全身衰弱(2명), 急性肝炎(2명)등이 있었으며, 특히 MPGN의 경우 肝疾患이 發見된 후 임상경과중 임상적 腎疾患으로 發展(6명)된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다.

4) CSGN은 LC가 2명, CAH가 1명, 정상인 1명이었고, 이들은 각각 慢性腎不全(2명), 高血壓(1명), 蛋白尿(1명)로 발현되었다.

5) Me GN(3명)은 CAH가 2명, 정상인 1명이었으며, 각각 急性絲球體腎炎, 血尿, 腎症候群으로 발현되었으며 임상적 肝病變의 증거는 없었다.

6) MC(3명)은 LC, CPH, CAH가 각각 1명씩이었으며, 血尿, 高血壓, 腎症候群으로 발현되었다.

이상에서 腎臟 및 肝의 組織檢査所見과 臨床檢査所見으로 肝炎B抗原과 관련된 腎疾患과 肝病變과의 몇 가지 相關關係를 考察하였다.

- 7 -

사구체신염에서 HBV 표식자에 따른  
임상적 관찰

高麗醫大 內科

邊寬洙 · 徐相烈 · 南宮鎭三  
金亨奎 · 洪津園

우리나라는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의 유행율이 높고 보균자가 많음으로써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의 호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신사구체 질환과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의 감염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이래 HBsAg과 신사구체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신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해 직접세포손해능 및 면역복합체에 의한 것이라는 것 이외에 자가면역질환과의 관

Table 1. Comparison of Various Parameters between HBsAg Positive and Negative Group (Mean±S.D.)

	HBsAg positive group(n=6)	HBsAg negative group(n=29)
C3(mg/dl)	70± 10.4	96± 34.9
C4(mg/dl)	19± 6.0	29± 12.6
IgG(mg/dl)	1,015±348.0	1,035±259.4
IgA(mg/dl)	316± 64.2	259± 82.3
IgM(mg/dl)	197± 66.0	138± 33.1
IgD(mg/dl)	45± 11.0	60± 36.3

\* Ig=Immunoglobulin

계등으로 설명되거나 HBsAg 혈중을 동반한 사구체 질환의 경우 혈중에서 면역복합체가 발견되고 C<sub>3</sub>치의 변동과 함께 신조직內에서 HBsAg, HBeAg을 포함한 면역복합체, IgG, C<sub>3</sub>등의 침착이 증명됨으로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HBsAg 혈중을 동반한 사구체 질환의 경우, Membranous glomerulonephritis가 가장 많고 신 증상은 혈노 및 단백뇨가 흔하다고 하나 보고자에 따라 이견이 있으며 그 빈도에 대해서도 아직 차이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신조직 검사가 가능했던 신사구체 질환자중, 혈중 HBsAg 유무에 따라 신 증상과 혈청 Complement, 면역글로부린 및 신조직 검사 결과를 비교관찰하고자 하였다.

1) 총 35예중 HBsAg 양성군이 6예(17.1%)로 남자 3예, 여자 3예였고 평균 연령은 33.3세였으며 이중 1예에서 만성 활동성 간염을 동반하였다. HBsAg 음성군은 29예(82.9%)로 남자 16예, 여자 13예였고 평균 연령은 28.5세였으며 이중 Anti-HBs 음성예가 8예(27.6%), Anti-HBs 음성예가 21예(72.4%)였다.

2) HBsAg 음성군 6예중 혈노만을 보인 경우가 1예(16.7%), 단백뇨 3예(50%), 혈노와 단백뇨 모두 동반한 경우가 2예(33.3%)였다. HBsAg 음성군 29예중 혈노만을 나타낸 예가 2예(6.9%), 단백뇨 13예(44.8%), 혈노와 단백뇨를 모두 나타낸 예가 13예(44.8%), 그리고 혈노와 단백뇨 모두 없었던 예가 1예(3.4%)였다.

3) HBsAg 양성군의 24시간 노 단백은 4.6±4.73g/day였고(신중후군 4예 66.7%, 신중후군이외의 질환 2예 33.3%), HBsAg 음성군의 24시간 노 단백은 5.2±5.31g/day(신중후군 19예 65.5%, 신중후군이외의 질환 10예 34.5%)였다.

4) HBsAg 양성군과 음성군의 혈청 C<sub>3</sub>, C<sub>4</sub> 및 면역글로부린치는 Table 1과 같다.